

# 무주의 아름다운 순간이 영화로!

산골영화제와 관객이 만드는 단편 다큐멘터리 '순간' 제작 계획 발표  
영화제 기간 영상 공모... 영화 통해 재발견된 무주 산골 모습 기대

초여름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낭만 영화제,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무주를 찾는 관객들과 함께 만드는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순간>의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28일 영화제에 따르면,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순간>은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이 무주에서의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순간을 촬영한 영상을 모아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마담 B>(2017)와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뷰티풀 데이즈>(2017) 등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윤재호 감독이 총 연출을 맡고, 작년 무주산골영화제 무성영화 라이브 연주 프로그램에서 버스터 키튼의 <손님 접대법>(1923) 라이브 연주를 맡아 호평을 받았던 어쿠스틱 팝 밴드 '뮤즈그레인'이 음악을 맡는다.

2010년 전 세계 197개국에서 업로드 한 하루 동안의 삶의 순간이 담긴 8만여 개의 유튜브 영상 클립을 편집하여 완성한 케빈 맥도널드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라이프 인 어 데이>(2010)를 모티브로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무주산골영화제에 참여하기 위해 무주라는 하나의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공유하는 아름답고

의미있는 순간들을 모아 관객과 함께 하나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완성함으로써 단순히 '즐거는' 영화제에서 벗어나 관객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영화제 기간 무주를 찾는 관객이라면 누구나 본 프로젝트의 영상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무주에서의 가장 의미있고 아름다운 순간을 담은 2분 이내의 영상을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혹은 영화제 오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업로드하면 된다. 이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4명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순간>은 2019년 하반기 제작을 완료하여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유튜브 또는 영화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참여 방법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열리는 행사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예한 현실을 섬세한 감각으로 스크린 위에 옮겨내며 한국 영화계 차세대 대표 감독 중 한 명으로 성장하고 있는 윤재호 감독의 영화적 감성과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음악으로 사랑 받고 있는 뮤즈그레인의 음악, 그리고 무주산골영화제를 사랑하는 관객들이 촬영한



윤재호 감독



뮤즈그레인

무주에서의 의미있고 아름다운 순간이 함께 어우러질 단편 다큐멘터리 <순간>은 영화를 통해 무주라는 공간을 재발견하고, 관객과 영화제가 영화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서로 소통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기자



정음시립국악단의 '정음풍류 樂(락)'이 오는 31일 밤 7시 30분에 정음시청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시립국악단의 공연 사진.

## "정음풍류와 신명나는 국악의 만남을 즐겨보세요"

시립국악단의 5월 상설공연 '정음풍류 樂(락)'이 오는 31일 밤 7시 30분에 시청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시립국악단은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정음을 대표하는 공연문화를 만들고자 매년 국악단 상설·기획공연을 추진해오고 있다.

5월 상설공연을 시작으로 매일 시민들에게

우리 국악의 다채로움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공연에는 놀부가 흥부네 집을 찾아가 금은보화로 가득 찬 화초장을 짊어지고 오는 '흥부전 中 화초장' 대목을 웃음과 해학이 넘치는 단막극으로 준비했다.

또 정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정음풍류가, 진정한 봄', 태평소와 사물놀이의 신명난 가락이 잘 담긴 '신모듬 3악장 놀이', 전통 기악의

하모니 '산조합주', 선계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춤으로 표현한 '풍류별전지', 바다의 소리를 담은 아쟁협주곡 '아리성', 정음 방문해 기원 창작 국악가요 '정음 노정기'를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흥이 살아있는 우리 국악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대중적이고 신명나게 구성했다"며 "가족, 친구, 지인 등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만들고 국악의 고장 정음을 맘껏 느껴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사)꼭두가 '다가사후'를 배경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

## 빼어난 경관과 문화가 만난다

꼭두, 다가사후 주제로 공연·체험·전시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사)꼭두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전주팔경 중 하나인 '다가사후(多佳身榭)'를 배경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

(사)꼭두는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전주 다다공원 입구에서 다가사후 이야기 꽃을 주제로 공연과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2019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매월 마지막 주에 펼쳐질 예정이다.

천양정에서 무관과 한라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며 과녁판을 겨누고 쏘아대는 모습이 장관을 이뤘다 해서 붙여진 다가사후는 전주팔경(완산팔경)의 꼽히는 유명한 곳이다. 꼭두는 이러한 다가사후를 무대로 문학(文), 무예(武), 음악(樂), 미술(景), 춤(舞) 등 다섯 가지의 특화된 주제로 공연과 체험, 참여, 전시 프로그램을 펼친다.

문학을 주제로 한 첫 문화가 있는 날인 31일에는 다가사후의 의미에 숨은 이야기를 되새기며 선비정신과 풍류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시 낭송과 동화 인형극 등 문화콘서트기 열리고 다라방 같은 공간에서 책과 노는 프로그램, 종이꽃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다가사후를 주제로 사행시 경연, 붓글씨 자랑 등 별시 재현 프로그램과 사회전도 마련됐다.

이후 6월에는 무예(武)를 8월의 경우 음악(樂), 9월 미술(景), 10월 춤(舞) 등을 주제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키로 했다.

심재균 (사)꼭두 대표는 "다가사후를 배경으로 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문화콘텐츠사업의 선도적 모델로 도시 내 공간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치 지향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전주팔경의 새로운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다가사후가 시민과 내방객을 위한 공공적인 문화앵커 장소로 문화재생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가사후 이야기 꽃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사)꼭두의 주관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송효철 기자

## 진안역사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가죽공예 체험 '호응'

진안역사박물관은 28일 지역 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5월의 프로그램은 가죽공예 체험으로 성인은 물론 아이들도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자신만의 개성있는 작품을 만들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 마이산이나 홍삼 등 진안

군과 관련된 마크를 가죽에 새기면서 우리 고장을 홍보하고 향토애를 가지는 시간이 됐다. 진안역사박물관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제도장 만들기, 풍선아트, 스트링아트, 네일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성인과 아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매월 진안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정을 보고 진안군청 문화체육과(063-430-2382)로 신청하면 된다.

/진안=우태만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